

문 10.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거리가 먼 한자성어는?

강연을 할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시행착오와 작은 성공담에 대해 먼저 말했다.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일은 없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 ① 虛張聲勢 ② 朝令暮改
- ③ 指鹿爲馬 ④ 針小棒大

문 11. 다음 문장들을 하나의 단락으로 재구성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순서는?

ㄱ. 또한, 이번 열차 운행은 한반도 전체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시키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ㄴ. 경의선 화물열차는 우선 남북 사이 물자 수송의 단가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ㄷ. 이는 남쪽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ㄹ. 지난 수십 년 북쪽 육로가 끊겨 섬과 같았던 우리나라가 다시 대륙국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조건을 갖춰가는 셈이다.

- ① ㄴ - ㄷ - ㄱ - ㄹ ② ㄹ - ㄴ - ㄷ - ㄱ
- ③ ㄱ - ㄴ - ㄷ - ㄹ ④ ㄴ - ㄱ - ㄷ - ㄹ

문 12. 다음은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읽은 후 중요한 사항을 요약문 형식으로 메모한 글이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떠나는 임에 대한 저주와 원망을 나타낸다. 임에 대한 저주는 화자의 약해진 마음 탓에 발병 정도의 순화된 악담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비해 ‘진달래꽃’의 화자는 임을 “꽃을 뿌리며 보내겠다.”고 한다. ‘보내겠다’는 미래시제로 보아 떠나고 싶을 때는 막지 않겠지만, 있는 동안 마음 놓고 사랑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임이 떠나는 고통을 내면화함으로써 그것을 달래보고자 하는 위안의 방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 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거리
- ②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식
- ③ 임을 보내는 태도의 차이점
- ④ 우리 문학에서 사랑의 양상

문 13. 한자어의 독음(讀音)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猥褻, 濫用, 破綻, 曇天 - 외설, 남용, 피정, 담천
- ② 撞着, 攪亂, 縹緲, 矜恤 - 당착, 각란, 붕대, 긍휼
- ③ 羨望, 辛辣, 復活, 匡正 - 야망, 신랄, 부활, 광정
- ④ 反駁, 悽慘, 淘汰, 羈縻 - 반박, 처참, 도태, 기미

문 14. 다음 각 시어의 풀이가 잘못된 것은?

秋風唯苦吟 世路少知音 窗外三更雨 燈前萬里心
- 최치원의 「秋夜雨中」 -

- ① 苦吟: 뒤척이는 소리
- ② 知音: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
- ③ 三更雨: 한밤중에 내리는 비
- ④ 萬里心: 먼 곳을 향하는 마음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주 중앙회관의 비빔밥은 맛이 있기로 유명하다. 이 회관은 전주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음식점으로 13년 전부터 비빔밥을 전문으로 내놓고 있다. 이 집의 주인은 본디 전주역전의 오거리 ‘명동집’에서 콩나물 비빔밥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끌었다. 그 뒤에 이곳에 큰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독특한 비빔밥을 만들어 못사람의 미각을 돋우고 있다. 이 집의 이층 별실에 자리하여 벽면의 고서화를 감상하노라면, 주방 부인이 손수 마련한다는 비빔밥이 상 위에 놓인다. 바가지만한 곱돌 그릇에 담긴 비빔밥은 철따라 다른 재료가 눈에 띄기도 하거니와 얼른 살펴보아도 아끼바리 쌀로 지은 밥, 쇠고기 육회, 콩나물, 청포묵, 고추장이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있다. 그밖에도 시금치, 고사리 등등도 있다. 그런데 이들 재료들은 주방 부인의 각별한 정성으로 제철에 사들여 마련해 두었다가 쓰인다. 간장만 하더라도 5년 이상 묵혀 쓴 겹장이며, 참기름, 깨소금도 시장에서 파는 것을 바로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제철에 상품의 깨를 사두었다가 잘 이루고 말려 기름집에 가서 직접 짜온 기름이요, 또한 자기 손으로 뿜은 깨소금이라는 것이다. 이윽고 수저를 들어 한 수저 내기를 잘 공글려서 입안에 덩석 넣어 씹기를 시작해 본다. 이 맛이라니! 어찌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으랴.

- ① 공간적 순서에 따른 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시간적 순서에 따른 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 ③ 소주제문이 뒤에 나오고 앞의 이야기들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 ④ 감상적 설명의 방법이 쓰이고 있다.

문 16. 다음의 글 (가)에 대해 글 (나)의 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가)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였다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러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 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的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러 안이 하노라.

- 「기미독립선언서」 중에서 -

(나) 강도 일본이 우리의 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政權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중 략 >

우리는 일본 強盜政治, 곧 異族統治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敵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중에서 -

- 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 ②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해.
- ③ 독립 후에 새로 건설할 사회상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어.
- ④ 강자를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건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군.

문 17. 다음 시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폭포소리가 산을 깨운다. 산땀이 놀라 뛰어오르고
 솔방울이 툭, 떨어진다. 다람쥐가 꼬리를 쳐드는데
 오솔길이 몰래 환해진다.

와! 귀에 익은 명창의 판소리 완창이로구나.

관음산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란 생각이 든다.
 피안이 이렇게 가깝다.
 백색 정토(淨土)! 나는 늘 꿈꾸어 왔다.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수궁(水宮)을.

폭포소리가 계곡을 일으킨다. 천둥소리 같은
 우레 같은 기립박수소리 같은 — 바위들이 흔들한다.

하늘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무한천공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 와서 보니
 피안이 이렇게 좋다.

나는 다시 배운다.
 절창(絶唱)의 한 대목, 그의 완창을.

- 천양희의 「직소포에 들다」 중에서 -

- ① 세속적인 번뇌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연에 인격을 부여하여 감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경지에 접어들고 있다.

문 18. 다음 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딸각발이’의 생활신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겨울이 오니 땀나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동지 雪上 삼척 냉돌에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 몸이 곧아오는 판에, 四肢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쫘쫘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쾌짠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하고 버르더란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각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이다.

事實로 족지마는 마음으로 안 족다는 양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불은 안 췌다는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 실상 그들은 假明人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小中華로 만든 것도 어쭙잖은 관료들의 죄요,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강직하였다. 목이 부러져도 굴하지 않는 기개, 사육신도 이 선생님의 부류요, 三學士도 ‘딸각발이’의 전형인 것이다. 올라가서는 圃隱 先生도 그요, 근세로는 閔忠正도 그다.

- 이회승의 「딸각발이」 중에서 -

- ① 자존(自尊) ② 지조(志操)
- ③ 청빈(淸貧) ④ 강직(剛直)

문 19. 다음 중 설명의 방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ㄱ. 금강산 3고탑이란 장연사(長淵寺) 3층석탑, 신계사(神溪寺) 3층석탑, 정양사(正陽寺) 3층석탑을 말하는데 이들은 형식과 구조가 매우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9세기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모두 하대신라에 개창 또는 중창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 특징은 아랫단이 2단으로 되어 있고 3층인 점, 탑의 몸돌이 한 장의 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네 모서리에 기둥을 새겨 놓은 점, 각 층 처마 받침이 4단으로 구성된 점, 기단에 장식의 돌이 들어 있는 점 등이다.

ㄴ. 당신은 한 사물이 지닌 속성들을 다른 사물을 변화시키는 데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모터보트를 제조하고 있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차에 관해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 칼라, 구조, 창문의 종류, 장치를 좋아하는가? 또한 최신 정기선을 방문해볼 수도 있고, 작고 인기 있는 근교 주택들을 방문해볼 수도 있다. 차, 비행기, 배, 집의 인테리어상의 중요한 속성은 당신이 보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사람들에게 잘 팔리도록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ㄷ. 문화가 국경을 넘으면 변화한다. 이는 바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바둑은 일본에서 도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풍도 달라졌다. 즉 중국 바둑이 세력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 바둑은 대체로 모양을 중시한다. 반면 한국 바둑은 전투력을 중시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둑이 일본에서 잡기나 여가 놀이가 아닌 도예로 격상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적 수용의 예이다.

ㄹ. 지난 여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다. 우선, 이동목욕 봉사차량에 올라 팔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들을 보고 속까지 울렁거렸던 때를 잊을 수 없다. 협소한 목욕 차량에서 장애인들을 씻겨 주면서 비 오듯 쏟아지는 땀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했다. 또 한 번은 탑골공원에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내 자신의 존재 및 가치를 알게 되었다.

- ① ㄱ ② ㄴ
- ③ ㄷ ④ ㄹ

문 20.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에 생기기 마련인 혼란과 일반적 불이익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길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부자유의 고통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유의 역리(逆理)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악(惡)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얻게 된다.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 ② 자유의 역리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자유의 제한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다.
- ④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